

한국 고대 능직물의 유형과 특성

- 석가탑 복장 능직물을 중심으로 -

장 현 주* · 권 영 숙** · 원 희 정***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will Damask Fabrics of Ancient Korea

- Focused on Twill Damask Fabrics found at Sukga Pagoda -

Hyun-Joo Jang* · Young-Suk Kwon** · Hee-Jung W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eju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t-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Merchandising, Kyongsung University***

(2006. 4. 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will damask fabrics through literatures review of both domestic and Chinese documents and records. In addition,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ill damask fabrics found at *Sukga Pagoda*.

The twill damask fabrics can be categorized in terms of the weaving method into *Float Pattern on a Tabby Ground*, *Twill Pattern on a Tabby Ground*, *Float Pattern on a Twill Ground*, *Twill Pattern on a Twill Ground*, and *Without Pattern on a Twill Ground*. The fabrics can also be divided in terms of their name into *Ki*, *Neung*, and *Munju*.

Four items of twill damask fabrics were found inside the *Sukga Pagoda*. All of them are *Twill Pattern on a Twill Ground*. At the primitive level of weaving skill, twill damask fabric was made by adding patterns with twill damask or *Bujik* on the background of plain weave. At more advanced level, the fabrics are weaved by making patterns with twill damask or *Bujik* on the background of twill damask. Compared to the relics of Koryo and Chosun Dynasty, these twill damask fabrics were loosely weaved with relatively thick thread.

Key words: twill damask fabrics(綾織物), *Float Pattern on a Tabby Ground*(平地浮紋), *Twill Pattern on a Tabby Ground*(平地綾紋), *Float Pattern on a Twill Ground*(綾地浮紋), *Twill Pattern on a Twill Ground*(綾地綾紋), *Without Pattern on a Twill Ground*(綾地無紋)

I. 서언

본 연구에서 조사한 직물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는 불국사 삼층석탑(석가탑)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8~10세기경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1966년 10월 탑을 수리할 당시 2층 탑신에서 동경, 옥류, 은제사리합, 사리장엄구 금동외함 등과 함께 발견되어 이 유물들은 현재 국보 제 126호로 지정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직물유물은 은제 사리합 및 사리 장엄구 금동외함 등을 싸는 보자기, 깔개 및 보공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유물들이 국보급인 만큼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직물 또한 통일신라시대의 최고급 직물이라 생각된다.

현재 일본의 정창원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유물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황성동 및 용강동 석실 고분에서 나온 인형 외에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관련 실증자료가 보고된 바 없으며 흥덕왕 복식금제기록을 통해서 의복명칭과 소재를 짐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석가탑 복장 직물에 대한 연구는 통일신라시대의 복식소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석가탑 복장 직물은 이미 발표한 羅織물¹⁾ 외에 평직물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능직물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능직물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직되었으며 고려시대까지 의료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가 조선시대 단직물이 제직되면서 사용량 또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시대 및 국가에 따라서도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 능직물은 실크 고유의 광택, 촉감, 문양, 색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 예로부터 지금까지 널리 애용되고 있는 소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및 중국의 문헌을 통해 능직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여 조직 및 명칭에 따른 능직물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석가탑에 복장되어 있었던 능직물에 대해 실증적인 고찰을 하고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능직물의 특성과 비교하여 한국 고대 능직물의 특성을 이해

하고자 한다.

II. 고대 능직물의 유형

1. 조직에 따른 능직물의 유형

능직물을 바탕조직에 따라 분류하면 바탕조직이 평직인 평지계와 바탕조직이 능직인 능지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시 무늬부분의 조직에 따라 부분, 능문, 무문 조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능직물의 발달시기를 중국과 한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바탕조직이 평직인 유형의 능직물이 바탕조직이 능직인 유형의 능직물보다 훨씬 일찍부터 제직되었으며 6~7세기를 기점으로 평지계의 능직물에서 능지계의 능직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바탕조직이 평직인 능직물의 경우 중국에서는 商代부터 유물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 평직바탕에 능 혹은 부직으로 무늬를 표현하는 綺典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5~6세기경 신라시대의 무덤인 천마총 출토 견직물 중 바탕 조직이 4매능직인 경금직물이 보고된 바가 있다²⁾.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석가탑 복장 능직물은 모두 바탕조직이 능직인 유형으로 이전에 국내에도 평지계의 능직물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평지계의 능직물에서 한층 발전한 능지계의 능직물이 활발하게 제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掖庭局에 綾匠을 두어 능을 제직하고³⁾ 紋綾으로 넓은 바지를 만들어 입었으며⁴⁾ 花綾을 기교있게 제직했다⁵⁾고 하는 등 다양한 기록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2. 명칭에 따른 능직물의 유형

1) 綺

綺는 綾의 고대 이름으로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평직 바탕에 부직, 능직, 주자직 등으로 무늬를

<표 1> 능직물의 발달시기⁶⁾

		BC 2 1C~AD 3C					3C~6C			6C~13C		13C말~15C			15C~20C	
		고조선, 삼한, 부여					삼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원시 사회	상	주	춘추 전국	秦漢	고구려	백제	신라			위진남북조	수, 당	송, 요	금	원
바탕이 평직인 유형 (평지계)	평지 부문		○	○	○	○				○			●			Ⓜ
	평지 능문		○	○	○	○				○			●			Ⓜ
바탕이 능직인 유형 (능지계)	능지 부문									○						
	능지 능문									●			○			Ⓜ
	능지 부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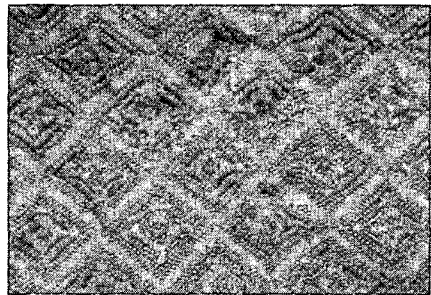
- 한국, 중국에 존재
- Ⓜ 한국에 존재
- 중국에 존재
- 한국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제직한 단층의 문직물이라고 정의한다⁷⁾. 그러나 일본의 문헌에는 綺에 관한 설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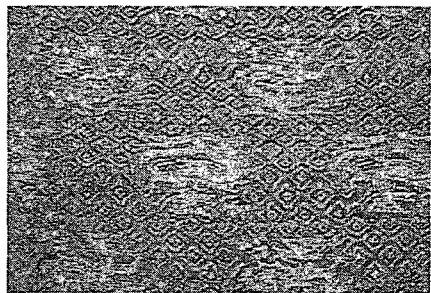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에 綺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綺典이라는 기관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통일신라 경덕왕대는 기전을 벌금방으로 일시 고쳤다가 다시 기전으로 하였던 점으로 보아⁸⁾ 錦과 제직 기법이 유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綺직물은 고려시대에 특히 발전했는데 왕의 사여 품목, 의복감, 교역품 등에 사용된 기록을 볼 수 있다. 아미타불 복장유물 중 紫衣의 옷감으로 사용된 직물은 고려시대의 귀족계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평직 바탕에 능직 또는 부직으로 능형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표현하여 매우 세련된 느낌을 준다<그림 1>.

중국 송대의 유물로서 이와 유사한 직물이 출토된 바 있는데 이것을 紋綱라고 분류하고 있다<그림 2>. 당대 이후 綾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문헌에서도 綺의 명칭이 사라지며 송대 이후에는 이것을 문주라고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의 직물에는 기하학문양과 등근 형태의 용문양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직물의 기하학문양은 자의의



<그림 1> 평지능문(부분) 기
(심연옥, 한국 직물 오천년,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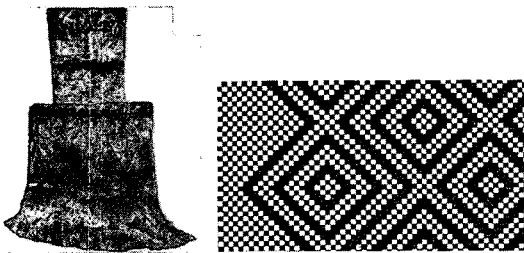
<그림 2> 方勝團龍 문주
(包銘新·趙豐, 中國織繡, p. 96)

옷감문양과 거의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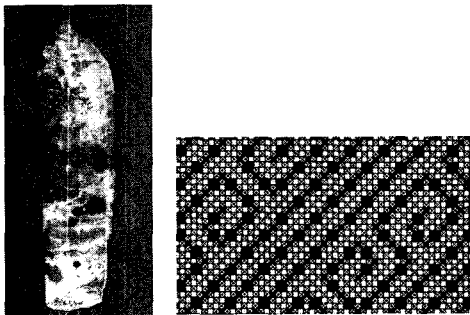
그러므로 고려시대 아미타불 복장유물인 자의의 옷감은 바탕조직이 평직이고 무늬가 능직 또는 부직이며 고려시대 당시 綺를 제직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綺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는 하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명칭을 정한다면 綾 또는 紋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綺직물은 중국에서 商代에 처음으로 回紋, 雷紋이 있는 암화직물이 청동기 위에 부착된 채 발견되었다. <그림 3>은 回紋, <그림 4>는 雷紋의 기하학 문양이 있는 직물의 흔적이며 평직 바탕조직에 능직, 부직으로 무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綺직물로 생각된다.

그 후 漢代의 유물은 현재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화문과 기하문 등의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唐代에는 포도, 동물 등 사실풍의 문양이 주로 사용되었다⁹⁾. 그리고 당대 이후 綾의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문헌에서 차츰 綺의 명칭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은허출토 銅鉞에 부착된 직물과 조직도(布目順郎, p. 75)



<그림 4> 북경박물관에 소장된 玉鉞에 부착된 직물과 조직도(趙豐, p. 44)

2) 綾

綾은 능직으로 직조하거나 능직 바탕에 부직, 능직, 주자직으로 무늬를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직바탕에 능직 등으로 무늬를 표현하던 綺에서 발전하였으며¹⁰⁾ 현재 일본에서는 평직 바탕에 능직으로 무늬를 제직한 직물도 綾으로 분류하고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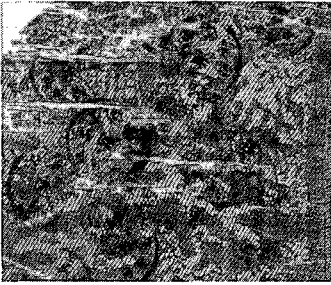
고대부터 제직한 단색 문직물의 한 종류로 먼저 제직을 한 후 한 가지 색상으로 염색하는 후염직물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미리 각각의 색상으로 염색한 실을 경, 위사에 사용하여 제직한 선염직물도 있었고 경사와 위사의 색상을 달리 하여 바닥과 무늬의 색을 다르게 제직한 이색능직물도 있다. 고려시대의 아미타불 복장물 중에는 운학문과 용문을 표현한 이색능이 있다<그림 5>.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의료 및 침구류, 말의 안장장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소문능의 사용을 언급한 예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크기가 작은 문양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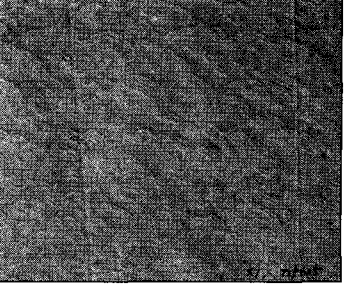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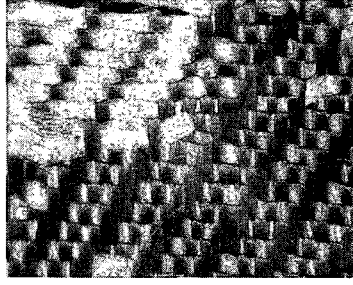
고려시대에는 액정국에 綾匠을 두어 綾을 제직하고 紋綾으로 넓은 바지를 만들어 입었다¹²⁾는 기록이 있으며 유물 또한 현재 많이 전해진다<그림 7>~<그림 10>. 은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아미타불 복장물과 수덕사 소장품 중에서도 다양한 문능직물이 있으므로 고려시대에는 실제로 많이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구름문양, <그림 7>과 <그림 8>은 기하학적 문양을 표현한 것이며 <그림 9>는 무문의 능직바탕에 화문을 자수한 황색 자수 문능으로 고려시대의 안동태사묘 소장품이다. <고려도경>에는 부인들의 의복에 자수를 흔히 사용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 직물은 고려시대 여인들이 사용한 자수직물의 예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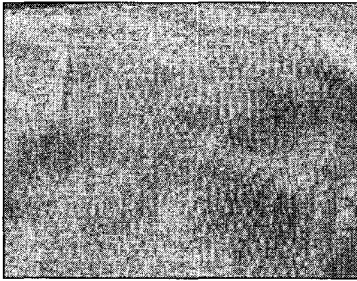
그러나 오히려 주자직물인 緞직물이 발달하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綾의 사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출토 및 복장유물 438점 중에 능직물이 115점, 주자직물이 323점이므로 이 시기 특징인 綾의 쇠퇴, 緞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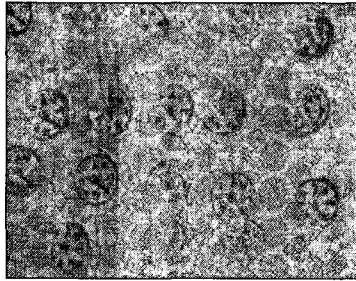
〈그림 5〉 이색능과 조직 (운양민속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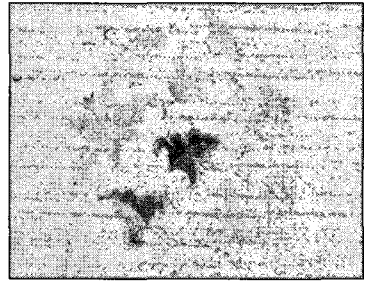
〈그림 6〉 능지능문능(수덕사소장)



〈그림 7〉 능지능문능
(수덕사 소장)



〈그림 8〉 능지능문능
(운양민속박물관소장)



〈그림 9〉 능지무문능에 자수
(안동태사묘 소장)

중국에서는 唐代부터 능직물이 크게 발전했으며 이 시기에는 織染署 十坊 중에 綺를 제작하는 곳이 있었으므로¹⁴⁾ 綺의 생산도 계속 이어지면서 綾의 생산이 더욱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唐代가 되면서 평직바탕의 능직물이 발달하고 綺직물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명칭이 綾으로 바뀌었다¹⁵⁾. 그리고 이 시기에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양의 종류, 생산지, 생산자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능직물이 있으며 이것은 송, 원대에 더욱 발달했다.

그리고 바탕 조직이 능직인 綾은 바탕 조직이 평직인 綺에서 발전했다. 실제로 7세기 후반~8세기 초 유물로 추정되는 일본 범룡사의 번에 사용된 능은 대부분 평직 바탕의 능직물인데 비해 8세기 중후반의 유물로 추정되는 정창원에 소장된 능은 대부분 이 능직 바탕의 능직물인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¹⁷⁾.

3) 紋軸

바탕조직이 평직 또는 능직이며 무늬조직이 부

〈표 2〉 능직물의 분류기준 및 종류¹⁶⁾

분류기준	능직물의 종류
조직	平地浮紋綾, 平地綾紋綾, 綾地浮紋綾, 綾地綾紋綾
생산지명	吳綾, 範陽綾, 京口綾, 杭綾
생산자명	司馬綾, 楊綾, 宋綾
문양도안	方紋綾, 仙紋綾, 雲花綾, 龜甲綾, 鸕鶿綾, 鏡花綾, 重蓮綾, 柿蒂綾, 孔雀綾, 犀牛綾, 楞蒲綾, 馬眼綾, 獨窠綾, 兩窠綾, 鶴綾, 鳥眼綾, 蒲桃綾, 大綾, 小綾
공예특징	雙絲綾, 雙紉綾, 交梭綾, 熟線綾, 織成綾, 樓機綾, 白編綾, 異紋綾
색상	異色綾, 白綾, 玄綾 등 다양한 색상의 능

직, 능직 등으로 무늬를 나타낸 직물을 조선시대에는 문주, 속수 등의 이름으로 불렀다. 그리고 중국의 明, 清代에도 이런 종류의 직물을 綢라고 부르며 明代 定陵에서 출토된 직물 중에는 綢라고 명시된 직물의 바탕조직이 3매 능직인 경우가 많았다¹⁸⁾.

이상의 고찰 결과 시대 및 국가에 따라 바탕조직이 평직 혹은 능직이며 무늬조직이 부직, 능직인 직물을 綺, 綾, 紋紬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Ⅲ. 석가탑 복장綾직물의 특성

석가탑 복장 능직물의 물리적 특성은 <표 3>과 같으며 조직, 밀도 및 실의 굵기, 문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석가탑 복장綾직물의 특성

번호		1-3	3-3 (6-2-1)	6-3-2	6-4-1
직물명		능지능문능	능지능문능	능지능문능	능지능문능
조직	바탕	4매 경능직(↖)	4매 경능직(↖)	4매 경능직(↖)	4매 경능직(↖)
	무늬	4매 위능직(↗)	6매 위능직(↗)	4매 위능직(↗)	6매 위능직(↗)
실굵기 (mm)	경사	0.28	0.17	0.29	0.154
	위사	0.4	0.3	0.21	0.289
굵기비	(위사굵기 / 경사굵기)	1.43	1.76	0.72	1.88
실꼬임	경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밀도 (가닥수/inch)	경사	114.3	121.9	91	135.1
	위사	68.6	95.3	62	73.3
밀도비	(경사밀도 / 위사밀도)	1.67	1.28	1.47	1.84
두께 (mm)		0.68	0.47	0.5	0.443
문양		능형문	화문	능형문	원형문

1. 조직 특성

조사한 능직물은 4점이며 모두 능지능문능이다. 일부 직물은 경, 위사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서 능의 매수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나 분석결과 4매, 6매의 능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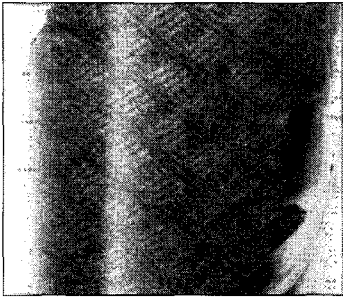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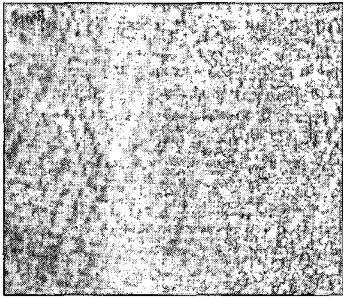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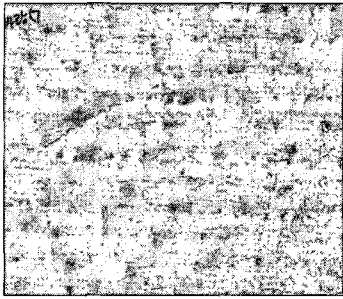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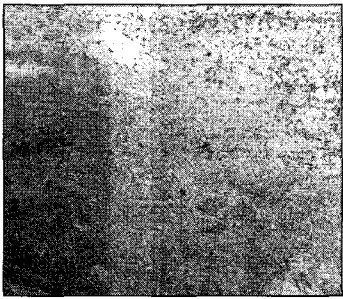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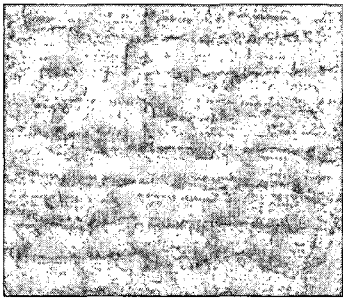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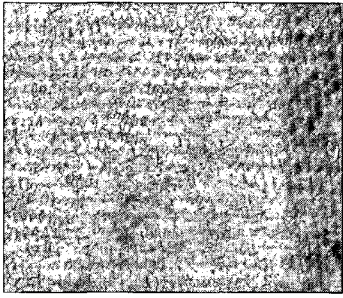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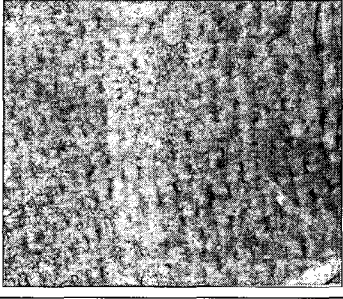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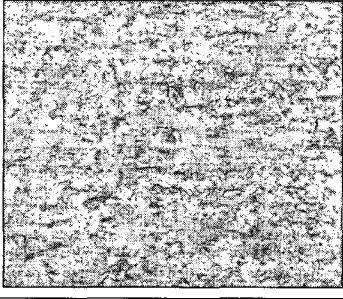
능직물은 평직바탕에 능직, 부직 등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이 초기 단계이며 본 유물처럼 능직바탕에 능직, 부직 등으로 무늬를 나타낸 것은 능직물

중에서도 한층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석가탑에서 발견된 본 유물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능직물이지만 그 바탕조직이 능직인 점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 훨씬 이전부터 국내에서는 능직물을 제작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시대 유물인 천마총 출토 직물 중 능직바탕의 경금직물이 보고된 바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이미 능직을 제작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여 능지 능문능의 직물이 다양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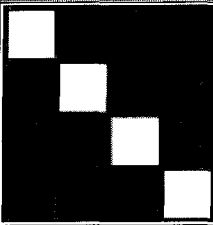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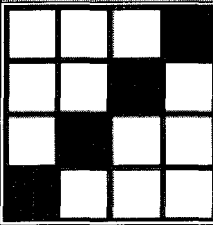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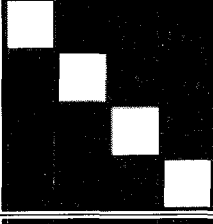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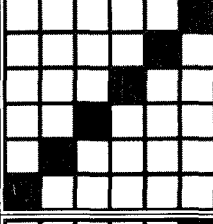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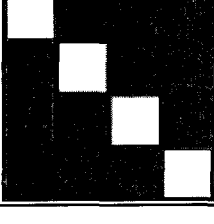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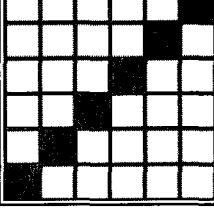
<그림 10>은 석가탑 복장 능직물의 전체 및 부분 사진이다.

4점 모두 바탕과 무늬의 조직이 경능과 위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탕과 무늬부분의 능선방향이 서로 반대인 이항사문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단색직물에서는 바탕과 무늬 조직의 능선방향을 교차시킴으로써 무늬를 더욱 두드러져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표 4>는 각 직물의 조직도 및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유물번호 1-3 전체	유물번호 1-3 조직	유물번호 1-3 조직
		
유물번호 6-2-1 전체	유물번호 6-2-1 전체 확대	유물번호 6-2-1 조직
		
유물번호 6-3-2 전체	유물번호 6-3-2 전체 확대	유물번호 6-3-2 조직
		
유물번호 6-4-1 전체	유물번호 6-4-1-조직	유물번호 6-4-1 조직

〈그림 10〉 석가탑 복장 능직물의 전체 및 조직 확대사진

〈표 4〉 석가탑 복장 능직물의 조직도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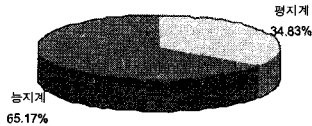
유물번호	바탕 조직	무늬 조직	특성
1-3 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1-3과 6-3-2는 같은 조직의 직물로 생각됨. • 바탕조직은 3/1의 경능, 무늬조직은 1/3의 위능. • 이항사문 • 바탕과 무늬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거의 같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작은 매수의 반대조직은 무늬를 더욱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음.
3-3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탕조직은 3/1의 경능, 무늬조직은 1/5의 위능. • 이항사문 • 무늬조직은 6매조직 중 경,위사간의 교차점이 가장 적은 조직으로 꼬임이 없는 위사의 광택을 잘 표현 했으며 4매능직의 능선과 조화되어 무늬가 부드럽게 드러나고 있음.
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 위사의 구별이 곤란했지만 대부분의 능직물은 바탕조직을 경능직, 무늬조직을 위능직으로 제작하므로 본 유물의 바탕은 3/1의 경능, 무늬는 1/5의 위능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이항사문

〈표 5〉 능직물의 유형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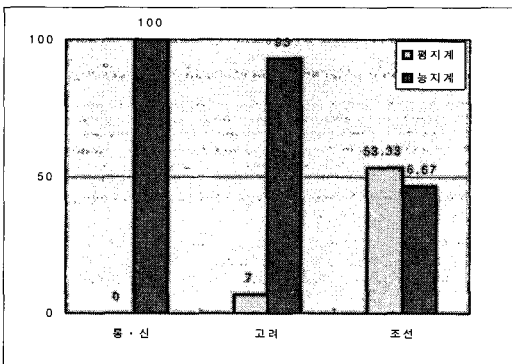
시대	출처	평지계		능지계			계
		평지부분	평지능문	능지평문	능지능문	능지무문	
통일신라시대	석가탑복장직물				5		5
고려시대	아미타불복장직물	1		26	31	1	59
	수덕사 소장직물		5	1	1	2	9
	안동태사묘출토직물				1	1	2
조선시대	경주이씨묘 출토직물		1		1		2
	여흥민씨묘 출토직물		3		9	3	15
	의원군묘 출토직물		1		2		3
	안동권씨묘 출토직물		8				8
	장기정씨묘 출토직물				3		3
	통도사 부도직물	4	1		5	1	11
	적천사 소장직물		3		1		4
	통도사 소장직물	22	6		23	1	52
	안동김씨묘 출토직물	3			7		10
	파평윤씨묘 출토직물					1	1
	남오성묘 출토직물		12				12
	조경묘 출토직물				1		1
이응해묘 출토직물					4	4	
계		30	40	27	90	14	201
		70(34.83%)		131(65.17%)			

〈표 5〉는 출토 및 사찰에 소장된 한국 전통 직물 중에서 능직이 사용된 직물을 조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¹⁹⁾. 바탕조직이 평직인 평지계와 능직인 능지계로 크게 분류하면 전 시기 통틀어 평지계 34.83%, 능지계 65.17%로 바탕 조직이 능직인 경우가 훨씬 많다(그림 11).

시대별로 비교하면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로 가면서 바탕이 평직인 평지계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비해 능지계의 비중은 감소하며 특히 조선시대에는 평지계의 비중이 능지계의 비중보다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2). 이것은 조선시대가 되면 바탕조직이 평직이며 무늬조직이 부직, 능직, 주자적인 직물 즉 문주, 영초 등의 비중이 많아진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1〉 평지계와 능지계의 유형비



〈그림 12〉 시대별 평지계와 능지계 유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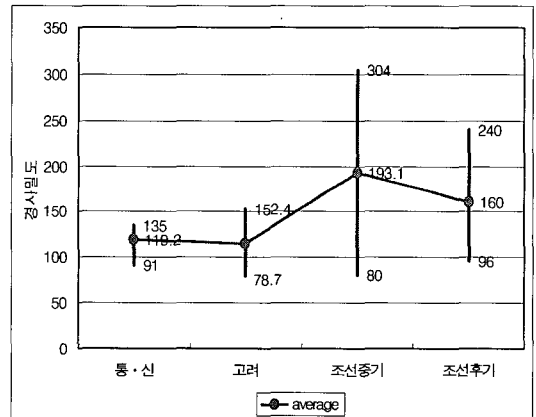
2. 밀도 및 실의 굵기 특성

경, 위사의 밀도는 91~135.1×62~95.3/inch(평균:119.2×74.8/inch)이다. 실은 모두 꼬임이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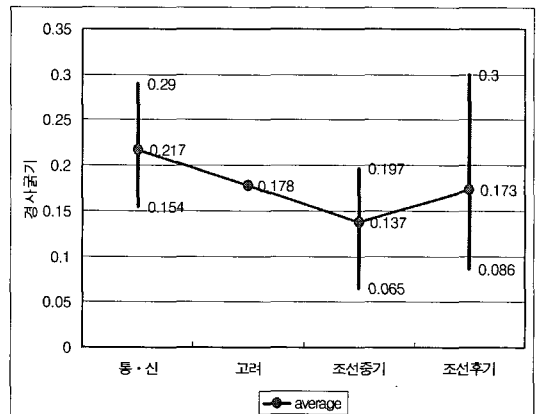
무연사로서 경사의 굵기는 0.154~0.29mm(평균:0.224mm), 위사의 굵기는 0.21~0.4mm(평균:0.30mm)이다.

경, 위사 밀도비와 경, 위사 굵기비를 함께 살펴보면 위사가 경사에 비해 1.34배 정도 굵고, 밀도는 1.5배 정도 적다. 따라서 직물에 나타난 무늬의 가로:세로 비가 거의 1:1로 동일하여 원형의 무늬인 경우는 타원보다는 정원에 가까운 무늬로 나타났으며 화문에서도 역시 전체적으로 가로:세로의 비율이 동일한 비율로 표현되어 다소 정형화된 느낌을 있으나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그리고 경사의 밀도와 굵기를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과 비교하면 〈그림 13〉~〈그림 14〉와 같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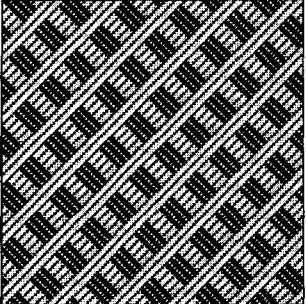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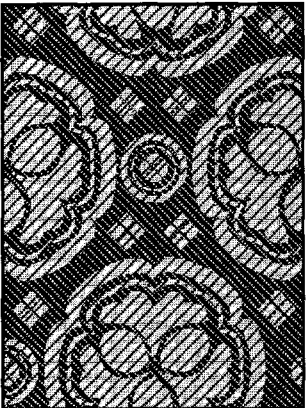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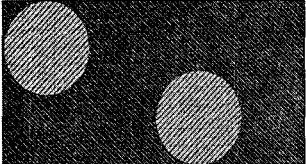


〈그림 13〉 시대별 경사 밀도 비교



〈그림 14〉 시대별 경사 굵기 비교

〈표 6〉 각 유물의 모티브 형태 및 특성

유물번호	모티브 형태	특성
1-3 6-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epeat 모티브 크기는 가로 5cm, 세로 5cm로 추정됨. • 바탕과 무늬의 능선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 문양이 더욱 뚜렷하게 보임.
3-3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직물은 조사 당시 많이 손상되어 있어 문양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그림과 같은 문양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모티브는 은행잎과 은행열매의 문양을 본떠서 직경이 대략 7.5cm인 하나의 화문 속에 단정하게 배열하고 화문과 화문 사이에는 또 다른 기하학 문양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1repeat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13.3cm로 추정됨.
6-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능선이 뚜렷하며 중간에 원형의 문양을 바탕의 능선과 반대 방향으로 배치한 직물임. • 모티브는 직경이 7cm인 원형이며 1repeat의 크기는 가로 24.3cm, 세로 12cm로 추정됨.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경사밑도는 거의 유사하며 조선 중기에는 경사의 밑도가 훨씬 치밀해지다가 조선후기가 되면 다소 성글어짐을 알 수 있다〈그림 13〉. 그리고 경사의 굵기는 통일신라시대 능직물에 사용된 실이 가장 굵으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중기로 가면서 가늘어지다가 조선후기에는 다시 굵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유물과 비교하면 본 유물은 비교적 굵은 실을 사용하여 성글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중기 유물에 비해 약 2배가량의 굵은 실을 사용하여 훨씬 성근 능직물을 제작했으며 고려시대 유물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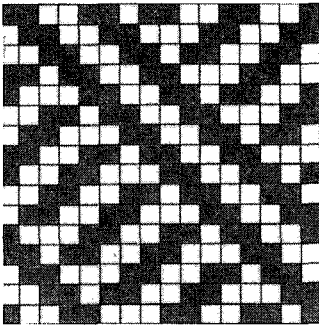
굵기의 실을 사용하여 밑도가 유사한 능직물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3. 문양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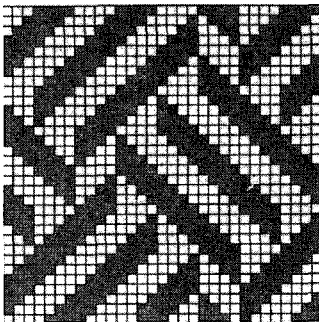
석가탑 복장 능직물에 사용된 문양은 기하학적 문양과 식물문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물에 나타난 문양의 1repeat을 유추하면 〈표 6〉과 같다. 조사 당시 식서부분이 남아 있지 않아 경, 위사 방향 구별이 되지 않는 직물도 있었으며 또 많이 훼손되어서 문양의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육안분석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

에 의한 사진화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양을 유추할 수 있었다.

유물 번호 1-3과 6-3-2에 나타난 문양은 일반적으로 소능격자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양의 배치구도는 사선방향으로 연결되는 스트라이프 패턴(Stripe pattern)으로 볼 수 있다. 기하학적 문양 중 견직물 綺의 마름모형태 문양과도 유사하며 현대 직물학에서 분류하는 조능직, 중능직의 조직과도 유사하다. 조능직은 능선방향이 반대되는 두개의 능조직을 배합하고 교차점에서 조직점을 삭제한 능조직이며<그림 15>, 중능직은 능선의 방향이 반대되는 두개의 능직을 중합하여 한쪽은 연속된 능선을 나타내고 다른 쪽은 짧은 능선을 나타낸 능조직이다<그림 16>.



<그림 15> 중능직(김성련, p. 279)



<그림 16> 조능직(김성련, p. 279)

유물번호 3-3(6-2-1) 직물은 다이아몬드 패턴(Diamond pattern)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2개 이상의 문양을 상하좌우 대칭이 되면서 원형, 타원형, 마름모형으로 배치하여 단위문양을 구성하는 형

태이며 디자인 상 패턴의 형이 다이아몬드 형에서 그 형태가 계속 상하좌우로 서로 연결되어 반복된다. 다이아몬드 패턴은 사각형 패턴이나 벽돌형 패턴 배열에 비해서 율동감을 주는 경향이 있으며 綺, 綾 등의 고대 능직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다. 그리고 직물에 사용된 문양을 분석한 결과 마치 은행잎과 그 열매의 모습인 것처럼 보인다.

유물번호 6-4-1은 처음의 패턴을 디자인상의 상하 변 문양은 서로 연결되게 하고 좌우 변 문양은 디자인 사이즈의 1/2씩 서로 엇갈려 이동시켜 연결하는 방식인 하프 드롭 패턴(Half Drop pattern)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형의 문양이 상하로 서로 연결되며 좌우로 서로 엇갈려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석가탑 복장 능직물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 능직물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대 능직물 중 綾은 능직으로 직조하거나 평직 및 능직바탕에 부직, 능직, 주자직으로 무늬를 표현한 것이며 평직바탕에 능직 등으로 무늬를 표현하던 綺에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바탕 조직이 평직이며 무늬 조직이 부직, 능직인 직물은 綺, 綾, 紋, 紉라는 명칭으로 시대 및 국가에 따라 다르게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대 능직물은 바탕 조직이 평직인 유형 즉 평직부문능, 평직능문능과 바탕조직이 능직인 유형 즉 능직부문능, 능직능문능, 능지무문능의 종류가 있다. 바탕조직이 평직인 유형의 능직물이 바탕조직이 능직인 유형의 능직물보다 훨씬 일찍부터 제작되었으며 이것은 6~7세기를 기점으로 평직계의 능직물에서 능직계의 능직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는 무늬가 적은 소문능이 의류, 침구류, 말의 안장장식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능직물의 제작에 관한 기록뿐만 아니라 유물 또한 풍부해서 능

직물이 크게 발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주자직물이 발달하는 조선시대가 되면서 능의 명칭이 크게 줄어들어 것으로 추측된다.

4. 석가탑 복장 능직물 4점은 모두 이항사문의 능지능능이다. 단색의 문직물인 능직물에서는 바탕과 무늬부분의 능선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교차되어 무늬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바탕과 무늬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바탕과 무늬가 거의 같은 면적을 차지하는 문양의 경우에는 작은 매수의 반대조직이 무늬를 더욱 뚜렷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평지계의 능직물에서 능지계의 능직물로 발전했으므로 본 유물은 조직 기법상 비교적 발달한 단계의 능직물로 볼 수 있다.

5. 경, 위사의 굵기와 밀도에서 나타난 특징은 위사가 경사에 비해 1.34배 굵고 밀도는 1.5배 정도 낮다. 이 결과 무늬의 가로:세로의 비가 거의 1:1로 동일하게 되어 원형문양의 경우는 타원보다는 정원에 가까운 문양으로 표현되었으며 화문의 경우에도 가로, 세로의 비율이 동일하여 다소 정형화된 화문으로 표현되었다.

이것을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유물과 비교하면 본 유물은 비교적 굵은 실을 사용하여 밀도가 비교적 성근 능직물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중기의 유물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굵은 실을 사용하여 훨씬 성근 능직물을 제작했으며 고려시대의 유물과 비교하면 거의 유사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여 밀도 또한 유사하게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6. 능직물 4점은 모두 기하학적 문양과 식물문양이 표현된 문직물이었으며 綺의 마름모형태 문양과도 유사한 소능격자형의 문양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외 직물은 조사 당시 많이 훼손되어 있어 문양의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었지만 여러 장의 사진을 육안분석 및 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의한 사진화면 분석한 결과 원형문양과 식물문양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권영숙, 장현주, 이용희 (2003). 한국 고대 라직물의 유형과 특성Ⅱ -석가탑 복장 羅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3(3).
 2) 권영숙, 조현옥, 장현주, 김종오 (2000). 신라시대 천마총 출토 직물의 유형과 특성 -現 경주박물관 소장직물을 중심으로-. 복식, 50(7), pp. 133-136.
 3) 高麗史 권 80 지 권 제34 食貨3
 4) 유희경·김문자 (1999) 한국복식화사. 서울: 교문사, p. 169.
 5) 高麗圖經 권 19
 6) 심연옥 (2002). 한국 직물 오천년. 서울: 고대직물연구소, pp. 92-121.
 包銘新, 趙豐 (1997). 中國織繡.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p. 40-41.
 周汎, 高春明 編著 (1996). 中國衣服飾大辭典.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pp. 496-502.
 趙豐 (1999). 織繡珍品. 香港: 芝紗堂 服飾出版, p. 334.
 佐藤武敏 (昭和53년). 中國古代絹織物史研究 下. 東京: 風間書房, p. 21, p. 250.
 朱新才 (1997). 中國絲綢史. 北京: 中國紡織出版社, pp. 258-262.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권 紡織與鑲治志. 上海: 人民出版社, pp. 146-147.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242.
 7) 심연옥. 앞의 책, p. 79.
 周汎, 高春明 編著. 앞의 책, p. 496.
 趙豐. 앞의 책, pp. 335-336.
 佐藤武敏. 앞의 책, p. 250.
 朱新才. 앞의 책, p. 277.
 何堂坤, 趙豐. 앞의 책, p. 146.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合作, p. 242.
 8) 민길자 (1997). 전통웃감. 대원사, p. 81.
 9) 周汎, 高春明 編著. 앞의 책, p. 496.
 10) 위의 책, p. 497.
 11) 심연옥 (2002). 앞의 책, p. 79.
 松本包夫 (소화 57년). 正創院ぎれ. 東京: 學生社, p. 151.
 12) 高麗史 권 80 지 권제34 食貨3
 13) 조효숙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동래정씨 흥곡공일가 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pp. 67-106.
 조효숙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인평대군파 의원군일가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pp. 129-200.
 조효숙 (2004). 심수릉묘 출토복식 -심수릉묘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 pp. 80-106.
 장현주 (1999). 조선시대 견직물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4) 何堂坤, 趙豐 (1998). 앞의 책, p. 146.
 15) 趙豐 (1999). 앞의 책, pp. 333-334.
 16) 周汎, 高春明 편저 (1996). 中國衣服飾大辭典. 上海: 辭書出版社, p. 537.
 何堂坤, 趙豐 (1998). 中華文化通志 제 7권 紡織與鑲治志. 上海: 人民出版社, pp. 146-147.

- 17) 松本包夫. 앞의 책, pp. 152-153.
- 18) 包銘新, 趙豐 (1997). 中國織繡.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p. 41
- 19) 심연옥 (2004). 남오성 묘 출토복식 -남오성 묘 출토복식 직물연구-. 국립민속박물관, pp. 144-171.
 서울역사박물관 (2003). 趙徵墓. 出土遺衣. pp. 74-81.
 광주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조효숙 (2001). 앞의 책, pp. 129-200.
 조효숙 (2003). 앞의 책, pp. 67-106.
 조효숙 (2004). 앞의 책, pp. 80-106.
 조효숙 (2004). 坡平尹氏 母子 미라종합연구논문집 II -파평윤씨 모자 미라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pp. 113-183.
 김미자, 조효숙 (1991). 1302년 아미타불복장물의 조사연구 -1302년 아미타불복장 직물의 분석-. 온양민속박물관, pp. 124-130.
 심연옥 (2004). 앞의 책, pp. 144-171.
 김명숙 (1999). 조선시대 복식 연구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서울: 학연문화사.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83-2002). 한국복식 1호-20호.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온양민속박물관 (1989).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실 (2000). 이석명(李碩明)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심연옥 (2004). 이응해 장군 묘 출토복식 -이응해 출토복식 직물 연구-. 충주박물관, pp. 169-201.
 장현주 (1999). 앞의 책.
- 20) 서울역사박물관 (2003). 趙徵墓 出土遺衣. pp. 74-81.
 광주민속박물관 (2000). 霞川 高雲 출토유물.
 조효숙 (2001). 앞의 책, pp. 129-200.
 조효숙 (2003). 앞의 책, pp. 67-106.
 조효숙 (2004). 앞의 책, pp. 80-106.
 조효숙 (2004). 坡平尹氏 母子 미라종합연구논문집 II -파평윤씨 모자 미라 출토직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물관, pp. 113-183.
 심연옥 (2004). 앞의 책, pp. 144-171.
 김명숙 (1999). 조선시대 복식 연구 -洪禹協 遺衣를 통해 본 朝鮮時代 17世紀 服飾과 織物-. 서울: 학연문화사.
 석주선 기념민속박물관 (1983-2002). 한국복식 1호-20호.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온양민속박물관 (1989). 安東金氏墳墓發掘調査報告書.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실 (2000). 이석명(李碩明)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심연옥 (2004). 이응해 장군 묘 출토복식 -이응해 출토복식 직물 연구-. 충주박물관, pp. 169-201.
 장현주 (1999). 앞의 책.